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 지역소식 > 사람사람들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8주년 추모식

장광호 편집국장 승인 2018.05.02 12:59

8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



항일 언론인이자 애국지사로 추앙받고 있는 담양출신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8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추모식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서 열린다.

(재)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 주최,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한 국내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의 탄신 128주년을 추모하는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김항식 전.국무총리의 약전봉독, 김창식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의 추모사, 그리고 연세대학 김명구 교수가 '송진우의 건국사상'을 주제로 추모강연에 나선다. 이어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되며, 고하 선생의 장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가 유족대표로 인사한 후 추모식을 마친다.





* 사진= 지난해 거행된 탄신 127주년 추모식

고하 송진우 선생은 1890년 담양 금성면 대곡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고향마을에서 보냈으며 1908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뒤 귀국, 1919년 서울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

이후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국민계몽운동,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등을 일으켜 일제의 탄압을 받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건국에 진력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서거했다. 이에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한편 선생의 고향인 담양에는 대곡마을에 복원된 생가와 기념관, 담양읍 관어공원에 추모비, 담양공고 앞 싹지공원에 추모시비가 있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